

성도의 교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니다.
2. 온라인 영상 예배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부터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3. 목회자 칼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57 회)
4.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5.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유, 교우들의 직장 and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국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 온라인 영상을 통한 캠퍼스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6. 목회자 소식: 금주 목요일(13 일) 오후 12 시에, 필그림에서 캄 아이티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The Heidelberg Catechism)

제 126 문: 다섯 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뜻은 우리가 짓는 그 어떠한 죄들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들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마시옵소서.¹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²

- 1) 시 51:1-7; 143:2; 롬 8:1; 요일 2:1-2
- 2) 마 6:14-15; 18:21-3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오후 12:30	저녁 7:00	(주) 오전 11:30 (Zoom)	(토) 오후 7:00 (Zoom)
☎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정창송, 교육목사: 김윤규	

제 20 - 32 호

2020.08.09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밀톤한인장로교회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Nipissing Road, Unit 8, Milton, ON. L9T 5B2 www.miltonkpc.com

주일 예배	오후 12:3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17 장	다함께
*교독문	81. 에베소서 4 장/314 장 1 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 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찬양의 시간		다함께
*성경 봉독	출애굽기 20:3	인도자
설 교	누구를 섬길 것인가? (Whom will you serve?)	정창송 목사
*찬 송	290 장 (통 412)	다함께
*축 도		정창송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밀톤한인장로교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출 20:3)

십계명 강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선명한 삶의 기준이며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도 같은 1 계명을 지키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1 계명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이 1 계명은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참된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계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너무 빠지면 광신자가 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만약 광신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정상적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개인이든 교회든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길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남으로 불행이 찾아오고 그것의 종이 되어 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써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따라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1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는 예배를 보시면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실은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구를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 1 계명은 삶의 우선 순위 문제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3 절)는 이 1 계명의 말씀은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끌려 가는 세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 순위에서 다른 것들로 대체할 때 하나님은 뒷자리로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priority 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들이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속에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의 운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 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한 우리의 삶과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는 절대 기준이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신이 될 만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적은 이방신 아닙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1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 31:1 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해도 그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1 계명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실수하지 않고 선을 넘지 않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의 삶에 참 위험한 것은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할 때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뺨”입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영클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길이 있다면 그 첫 번째 길은 이 1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분을 높여 그 분에게 마땅한 예배를 드리고 그 분을 삶의 1 순위에 모시는 것입니다.